



청소년은 지금 e- 상담중

가족·친구들에겐 말 못해도 인터넷엔 부담없이 털어놓아

“친구의 여자친구를 좋아하는데, 고백을 해도 될까요?”
 “친구와 여자친구가 헤어진 뒤 만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재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좀 무리일 듯...”
 광주 C중학교 3학년생인 김모(15)군은 요즘 ‘사이버 상담’에 빠

// web.humoruniv.empas.com), 드림위즈의 ‘G카페’(http://g.dreamwiz.com), 야후의 ‘제미 존’(n2o.yahoo.co.kr) 등에는 고민 상담을 요청하는 초·중·고생들의 글이 하루 100여 건이 넘게 올라온다. 다른 포털들도 ‘고민상담’ ‘포레들의 고민상담 말해줘’ 등의 코

학교는 ▲초등학교 136 ▲중학교 81 ▲고등학교 61개교 등 278개교. 이중 광주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한 학교는 ▲중학교 12 ▲고등학교 11개교 등 23곳으로 전체의 8.3%에 불과하다. 상담실을 찾는 학생 수도 올해 10명 내외라는 게 대다수 학교 측의 설명이다.

◇부작용도 커=인터넷 상담 코너에는 타인이 작성한 글에 대해 비방하거나 헐뜯는 ‘댓글’이 많다. 이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고민을 해결하려 왔다가 오히려 큰 상처를 안고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특히 전문지식이 부족한 친구나 선배 등과 상담하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 부모와 교사 등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줄면서 대화 단절로 이어져 ‘잠재적 문제’로 성장될 가능성도 크다.

광주 K중 관계자는 “요즘 학생들은 문제만 생기면 인터넷에 물어보고 답을 구하는데, 이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며 “중요한 문제일수록 마음을 열고 부모나 교사와의 상의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포털 카페에 하루 100건 넘게 올라

학교 상담실 휴업 ... 부작용도 속출

졌다. 김군은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민을 인터넷을 통해 부담없이 털어놓는다. 교사 등 상담원과 마주하는 부담도 없고, 원하는 답변을 댓글을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교 진학 문제’를 질문, 고민을 해결했고, 요즘엔 ‘이성문제’를 놓고 이야기 중이다.

◇포털 마다 ‘바글바글’=10대들은 인터넷을 통해 진로상담·이성교제·학교 생활·성적·신체 콤플렉스 등의 문제를 푼다. 포털사이트 엠파스의 ‘웃긴 대화’(http:

너를 운영 중이다.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고민을 이야기하고 푸는 것은 ‘문제 해결’의 차원을 넘어서, 자신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인터넷 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교사와 부모 등 상담원을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고민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점은 ‘사이버 상담’의 장점. 비슷한 정서와 생각을 갖고 있는 또래가 건네주는 말 한마디는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된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학교 상담실은 개점 휴업 상태다. 광주시내



광주고등법원 ‘사랑의 김치’

광주고등법원은 20일 오전 법원 1층 현관 로비에서 이태운(사진 오른쪽에서 세 번째) 법원장과 판사 8명을 비롯한 고법 직원 60여 명이 참여해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광주고법원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국민만

족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포상금과 친조금 600만 원으로 절인 배추 700kg·양념 300kg를 구입한 뒤 이날 직접 김장김치를 버무렸다. 법원 직원들은 담근 김치와 리본 등을 이날 오후 광주지역 소년·소녀가장 34가구와 지산동 독거노인 140가구에 전달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도심에 ‘도깨비 불’

건물·비닐하우스 잇따라...범인·원인 ‘오리무중’

광주 도심에 ‘도깨비 불’이 잇따르고 있다. 화재 원인도 오리무중(五里霧中)이고 범인 윤곽도 전혀 잡히지 않고 있다.

20일 낮 12시38분 광주시 북구 누문동 지하 1층 Y물류센터(대표 최모·52) 창고에서 불이나 전체면적 330.58㎡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3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여 분만에 진화했다.

이 물류센터는 앞서 지난 19일과 14일에도 불이나 1억원대 이상의 피해를 입었으며, 한전이 임시 가설해준 전등만 켜 채 플라스틱 통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곳에서만 최근 세 차례나 화재가 발생했는데 전기 가설공사 등에도 문제점이 없는 점으로 미뤄 누군가 고의로 불을 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9일 밤 9시43분 광주시 북구 각화동 모 교회 주차장에서는 스타렉스 승합차 등 차량 4대가 전소됐다. 차량 소유자 정모(37)씨 등은 이 교회 신도로 당시 예배를 보고 있던 중이었다. 경찰은 과학 수사반을 동원, 정밀 감식에 나서고 있으며 계획적인 방화로 추정하고 있다.

또 철거를 앞두고 전기가 끊어진 북구 연제동 반경 1km 내 시설하우스에서 지난 7일부터 5건의 화재가 연이어 발생했으나, 지금껏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코카콜라에 이물질

광주 오치동서 발견...정밀검사

이물질 등이 들어간 코카콜라가 광주에서 발견됐다. 회사원 이모(여·30·광주시 북구 오치동)씨는 지난 19일 밤 9시께 북구 오치동 D횡집에서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350ml 짜리 코카콜라 한 병을 주문했다. 이씨는 플라병을 따서 마시던 중 3cm 크기의 녹차 잎처럼 보이는 이물질 서너 개를 발견했다. 플라병 안쪽에는 녹이 스는 흔적도 있었다.

콜라를 마신 후 복통과 설사 증세를 보인 이씨는 “정상적인 콜라와 달리 ‘복’쓰는 맛이 없고 심겨웠다”고 말했다. 문제의 콜라는 지난 10월22일 광주시 북구 양산동 한국 코카콜라 보틀링(주) 공장에서 제조된 것이다. 공장 측은 콜라병 목이 0.1mm 정도 파손된 점으로 미뤄 유통과정에서



코카콜라 병 속에 들어있는 3cm 크기의 이물질.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방부제 역할을 하는 탄산가스가 빠지면서 공기가 들어가 곰팡이가 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문제의 콜라병을 회수해 자사 품질관리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한국 코카콜라 보틀링(주) 김용길 홍보차장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유통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인 만큼 같은 날짜에 제조된 다른 콜라에 대한 회수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보건증 발급 ‘허점’

광주서 10대 소녀 성매매하다 들통

장성보건소 확인 소홀

다방과 유흥업소 등 취업에 필요한 보건증 발급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 장성에 살던 이모(15)양은 지난 8월16일 택시에서 주운 김모(여·22)씨의 주민등록증을 제시, 장성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았다. 보건증 발급과정에서 이양의 얼굴과 김씨의 얼굴 사진이 확연히 다르고, 나이도 어려보였지만 당시 담당자는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은 김씨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오려 붙여 복사, 보건증과 함께 내보낸 후 광주시 북구 신안동 D다방에 들어가 성매매를 했다.

이양의 성인 행세는 선금금 250만 원을 갖기 위해 다른 다방으로 옮겨가고 복사된 신분증을 제시했다가 업주가 주민등록증 원본을 요구하는 바람에 들통났다.

광주 북부경찰은 20일 다방 여종업원으로부터 일하면서 성매매를 한 이양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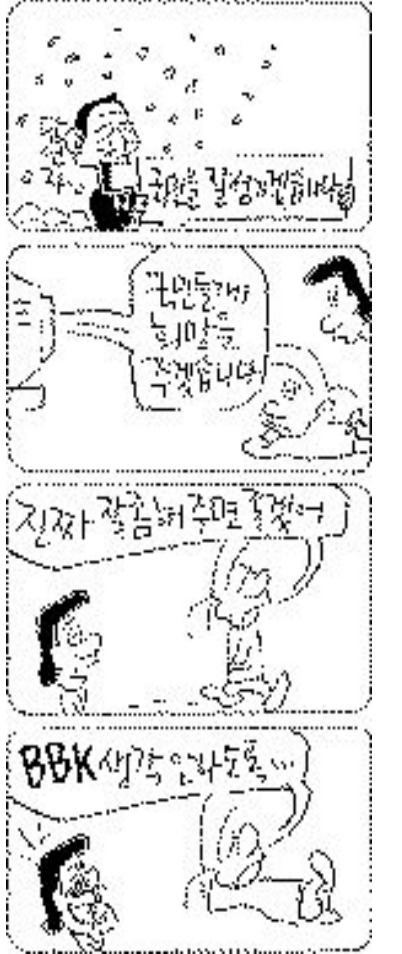
D다방 업주 김모(45)씨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불잡아 조사 중이다.

장성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증의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뒤 발급해 주진만으로도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7389) 김장두



골프장 공사비 3억 때먹은 조폭 두목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골프장 공사 대금 3억여원을 때먹은 광주 폭력조직 C과 두목 정모(46)씨에 대해 갈취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4년 장성군 북하면에 B골프장을 건설하면서 태양열 발전설비를 맡은 A건설업체 김모(53)씨와 중장비업자·골재업자 등 3명에게 지급할 돈을 주지 않았다는 것.

○정씨는 조직폭력배들을 공사장에 배치한 뒤, 허리를 90도로 꺾어 인사를 하게 해 업자들을 주눅이 들게 하는 수법으로 돈을 주지 않았다고.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살고 싶으면 공사대금을 전부 받은 것으로 입금표에 서명하라”며 협박하고, 공사가 끝나면 “물이 샌다”는 등 트집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아~ 고구려여!
광개토대제시여!
 이제 부활의 문을 열었나이다.

광개토학원장 배상

1588-0165

부활의 문
재수 전문